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된 항목들의 핵심 요점들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9

주님의 회복 대(對) 악한 이 시대 그리고 교회의 종말론

성경: 갈 1:4, 5:4, 6:13-15, 계 11:15, 19:7-9, 21:2, 10-11

I. 주님의 회복은 악한 이 시대, 곧 종교의 악한 시대와 대립된다 — 갈 1:4.

- A.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1. 한 시대는 사탄의 체계인 세상의 한 부분, 한 방면, 현재의 모습 혹은 현대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 시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하고 점유한다 — 엡 2:2, 요일 2:15-16.
 2. 갈라디아서의 문맥에 따르면, 1장 4절의 ‘악한 이 시대’는 종교적인 세상, 세상의 종교 체계, 곧 유대 종교를 가리킨다. 이것은 6장 14절과 15절에 의해 입증되는데,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다.
 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악한 이 시대에서 구출하시고 빼내시며 해방하시는 것이었다 — 갈 1:4.
 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이 시대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 골 1:9.
- B. 종교는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기 위해 사탄의 선동과 영감 아래서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진 것이다 — 딤후전 1:4, 엡 1:10, 3:9.
1. 종교는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의 영을 떠나 있다 — 갈 5:4-5, 3:1, 5, 14, 24.
 2. 종교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나 그 영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종교적이 될 때마다 악한 이 시대의 덫에 걸리게 된다.
 3.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종교적인 세상을 형성했다 — 갈 1:4, 5:4.
 - a. 사탄은 종교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끊어지게 한다.
 - b. 사탄이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있는 한, 그는 만족한다 — 골 1:9, 4:12, 1:18, 2:19.
 - 1) 종교적인 시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 엡 5:32.
 - 2)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 갈 1:4, 5:4.

- 3) 종교적인 덧은 우리에게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빼앗는다 — 갈 1:15-16, 2:20, 4:19.
4. 주님은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종교 안에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길이 없다.
5. 우리와 종교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다. 하나의 세상인 종교는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도 종교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 갈 6:13-14.
- C. 바울의 경우에 악한 이 시대는 유대교였고,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 악한 이 시대는 기형적으로 변하고 하락한 기독교이다 — 갈 1:4, 마 13:31-33, 44-46.
1. 우리는 악한 이 시대의 종교적인 영향에서 구출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몸이지만,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전통들과 조직들과 연기(演技)들과 거짓된 것들로 가득한 종교 — 기형적으로 변하고 하락한 기독교 —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없다.
3. 우리는 모두 종교로부터, 곧 악한 이 시대인 기독교로부터 구출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바빌론에서 나와야 하며, 바빌론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가야 한다 — 스 1장, 계 18:4, 숙 3:1-4.
4.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의 역사(歷史)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역사였다. 곧 악한 이 시대에서 나와서 그 바깥에 있는 역사였다 — 갈 1:4, 히 13:12-13.
5. 주님의 회복은 오늘날의 종교 — 기형적으로 변하고 하락한 기독교 — 와 다르기 때문에, 회복과 기독교 사이의 화해는 불가능하다 — 마 13:31-33, 44-46, 계 18:4, 19:1-3, 7-9.
6. 우리는 주님의 회복과 기독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간격이 더 넓을수록 더 좋다. 왜냐하면 이러한 간격은 우리와 악한 이 시대 사이의 간격이기 때문이다 — 갈 1:4.

II. 세상의 종말론, 곧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종말론도 있다 — 계 11:15, 12:10, 21:2, 10-11, 22:16.

- A. 교회의 종말론은 천주교와 개신교와 본래 있었다가 회복된 교회와 관련된다.
- B. ‘회복된 교회’라는 표현은 본래의 교회, 곧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른 교회를 가리킨다 — 마 16:18, 18:17, 고전 1:2, 계 1:11.
1. 사도들은 본래의 교회를 세웠지만,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여전히 살아 있는 동안에도, 교회는 그 본래의 상태로부터 하락한 상태로, 기형적인 상태로, 심지어 변질된 상태로 떨어졌다 — 딤후 3:15, 딤후 2:18-21.
2. 회복의 서신들인 디모데후서와 베드로후서와 요한이삼서가 말해 주듯이, 본래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복된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 행 14:23.
- C. 천주교의 실상과 결말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계시되어 있다.
- D. 개신교에는 많은 ‘가라지’ 곧 거짓 믿는 이들이 있다 — 마 13:37-42.
- E. 본래 있었다가 회복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 — 고전 1:2, 3:9, 16-17.
1. 회복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항상 좁은 길을 취한다 — 마 7:14.
2. 회복된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별한 공과들을 배운다.

- a. 그리스도를 앎 — 빌 3:10.
 - b. 육체와 자아를 앎 — 롬 7:18, 마 16:24.
 - c.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배움 — 갈 2:20.
- F.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천주교와 개신교와 본래 있었다가 회복된 교회를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것이다.
1. 주님은 어떤 종류의 교회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을 그분의 심판대 앞으로 불러내시어, 그들을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것이다 — 고후 5:10, 롬 14:10, 고전 4:5.
 2. 그 심판에서 주님은 그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했는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했는지를 분별하실 것이다 — 고전 3:12-15.
 3.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된 이기는 이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새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되는 상을 받을 것이다 — 계 2:7, 3:12.
 4. 종교는 끝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준비될 것이다 — 계 19:1-4, 7-9.
- G. 결국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이다 — 계 21:2, 10-1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종교적인 시대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도록 우리의 죄들을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종교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음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은 종교적인 현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는 것이었다. 시대는 사탄의 체계인 세상의 한 부분이다. 한 시대는 사탄의 체계인 세상의 한 부분, 한 방면, 현재의 모습 혹은 현대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사탄은 이 시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하고 점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한다. 사탄의 세상 조직은 여러 시대 혹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십 년 기간을 사탄의 세상 조직의 한 시대 혹은 한 부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현시대는 사탄의 코스모스, 곧 사탄의 세상 조직의 현재 부분이다. 죄들은 마귀적인 데 반해 현시대는 사탄적이다. 마귀로서 하나님의 원수는 죄들과 관련되고, 사탄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는 악한 시대와 관련된다. 하나님의 원수는 간교해서 죄들과 악한 시대 뒤에 웅크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가 숨어 있는 죄들이나 사탄이 숨어 있는 악한 시대를 처리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마귀 사탄에게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죄들과 악한 시대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악한 이 시대에서 건지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악한 이 시대에서 구출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들이 처리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들은 악한 이 시대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건지다’에 대한 헬라이어 단어는 직역하면 ‘빼내다, 끌어내다, 구출하다’로 번역될 수 있다. 이 책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 ‘악한 이 시대’는 종교적인 세상, 세상의 종교 체계, 곧 유대 종교를 가리킨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악한 이 시대에서, 곧 사탄이 강탈한 종교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행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여러분은 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아주 없애 버리려고까지 하였었습니다. 또한 나는 유대교 안에서 내 동족 중 많은 동년배들보다 앞서가고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악한 이 시대가 세속적인 세상이 아닌 주로 종교적인 세상을 가리킨다는 것은 6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구절들에서 할례는 세상, 곧 종교적인 세상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다.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신 목적이 우리를 악한 이 시대, 곧 유대 종교로부터 건져 내시고 빼내시려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의 보호로부터 건져 내고(갈 3:23), 양 우리에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이다(요 10:1, 3).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시작에서 자신이 무엇을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밝혔다. 그는 유대교와 그 율법에 의해 빛나간 교회들을 건져 내어 다시 복음의 은혜로 되돌리기를 원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은 유대교라는 우리 안에 있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이 분명히 밝혀 주듯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들을 우리로부터 이끌어 내시어, 그들을 이방인 믿는 이들과 함께 하나의 양 떼 곧 교회로 만드셨다(요 10:16). 따라서 우리는 종교이며, 반면에 양 떼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우주적인 한 교회 곧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 종류의 교파와 분파와 독립 단체들은 우리들이다. 또한 율법적으로 된 것은 무엇이든 우리이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사용되었다가 후에 율법이 되어 버린 것은 무엇이든 우리이다. 예를 들어,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는 옳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우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양들을 종교적인 여러 우리들로부터 건져 내시어, 그들을 한 양 떼로 모으기를 원하신다.

주 예수님은 양 우리 안에 오셔서 문을 여시고, 이 양들을 우리에서 이끌어 내셨다. 유대교도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종교적인 우리로부터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주셨다. 원칙은 바울 시대의 믿는 이들이나 오늘날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죄 판결과 불 뜻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교적인 세상에서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교적인 세상에서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은 그분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유대교를 미워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분의 제자들을 유대교로부터 구출하시려고 한 것은 그분께서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대 종교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른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

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민을 유대교와 율법과 전통과 의식에서 건져 내실 것을 계획하셨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위한 살아 있는 몸인 교회를 얻는 것임을 계시한다(엡 1:22-23, 3:10-11).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이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 종교나 기독교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할례도 무할례도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뜻은 새 창조물(갈 6:15), 곧 새사람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골 3:10).

더 나아가 로마서 12장 2절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로마서 12장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몸의 생활이다(4-5절). 우리는 몸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몸의 생활 밖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탄의 목표는 사람들을 그의 세상으로 조직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바울 시대에 사탄은 유대교를 사용해서 유대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조직화했다. 오늘날 사탄은 기독교 종교를 사용해서 수많은 주님의 백성을 조직화하여,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에서 멀어지게 했다. 바울이 그 시대의 유대교로부터 구출되었듯이, 오늘날 참된 믿는 이들과 추구하는 이들도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기독교의 종교적인 체계에서 구출되어야 한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251-3254쪽)

사탄은 종교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인 교회에게서 끊어지게 함

사탄이 사용한 것 중에서 종교만큼 교활한 것은 없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죄와 세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지만, 죄와 세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종교가 그리스도께 강력한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렵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종교라는 너울을 사용한다. 이것은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더 발전된 종교인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사탄의 조직을 많은 학과가 있는 큰 대학교에 비유할 수 있다. 사탄의 ‘대학교’에는 춤을 추거나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과들이 있지만,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탄은 그들에게 더 나은 학과, 곧 종교라는 학과를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학과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경건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학과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할 수 있는 한 만족한다. 그러나 사탄의 조직에 참된 교회라는 학과는 없다. 주님은 “내가 ...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마 16:18)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은 교회를 참으로 두려워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교리적인 지식을 찾는다면, 그는 종교라는 사탄의 학과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교회라는 것을 합당한 방식으로 선언한다면, 사탄은 두려워 떤다. 오늘날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속임당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몸의 실행이 없다. 심지어 그들은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당신이 교회의 문제를 만지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원수의 교활함이다. 놀라우신 예수님이 몸과 실지적인 교회생활이라는 목적을 위해 믿는 이들 속에 넣어지셨다. 우리는 장래 어느 날 교회가 나타날 것이라거나 교회가 하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오늘 이 땅 위에, 우리의 지방 안에 있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너울로 가려져 있고 속임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과 계시는 종교와 전통과 사람과 사람의 가르침과 대립됨

갈라디아서 1장에는 네 가지 부정적인 항목들과 네 가지 긍정적인 항목들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는 유대교로 대표되는 종교(13-14절), 전통(14절), 사람(1, 11-12절),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12절)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는 종교와 대립되시는 그리스도(1, 12, 16절), 전통과 대립되는 교회(13절), 사람과 대립되시는 하나님(10, 15절),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과 대립되는 계시(12, 16절)가 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갈 1:1) 되었다. 사도로서 바울의 근원과 기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다. 그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거나, 사람으로부터 받았거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갈 1:11-12).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었다. 가르침은 많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만들어내지만,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산출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와 계시는 사람과 종교와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과 대립된다.

종교는 악한 이 시대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바울의 중점은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 시대로부터 구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세상 전체는 사탄의 조직이며, 그것은 서로 다른 많은 시대들로 나누어진다. 19세기가 한 시대였고, 20세기가 또 다른 한 시대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이 한 시대였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가 또 다른 한 시대였다. 그리고 1960년대는 특별한 종류의 행동과 복장과 외양을 가져온 또 다른 시대였다. 이 모든 시대들이 다 함께 더해져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이 시대에서 건져 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의 문맥에 따르면, 바울 당시에 현시대는 종교였다. 그 당시에 종교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악한 이 시대로부터 건져지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유대교는 갈라디아가 있었던 소아시아를 포함한 지중해 지역에서 ‘현대적인’ 종교였다.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며, 레위기에 따라 먹는 것에 관한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최신의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기독교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종교이다. 현대적이 되는 것은 단순히 이 시대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이 시대로부터 구출된다는 것은 현대적인 것들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시대에서는 유대 종교였고, 우리의 시대에서는 기독교라는 현시대의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죄들 때문에 내주셨다.

사전에는 종교가 좋은 단어로 정의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1장은 종교가 그리스도와 대립된다고 말한다. 종교는 교회를 박해하고, 강탈하며, 아주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는 잘못된 종교이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종교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실재가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교는 거룩한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종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의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방식으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오직 외적인 전통들과 축제일들만을 지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종교가 그리스도를 대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종교라는 악한 이 시대로부터 구출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실재가 없는 기독교 안의 낡고 전통적인 실행들은 악한 이 시

대의 한 부분이다. 종교적인 시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인 교회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악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은 없다. 이런 원칙으로 볼 때, 사도들의 시대에 유대교가 그러했던 것처럼,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오늘날의 기독교도 악한 이 시대인 것이다. 그 당시에 사도들을 반대했던 것은 주로 세상이나 죄인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한 이 시대인 유대교였다. 유대교는 심지어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에 따라 주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다. 바울은 “여러분은 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갈 1:13)라고 말한다. 이것이 악하지 않은가? 무엇이 이것보다 더 악하단 말인가? 사람들은 종교를 전통과 윤리의 관점에서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종교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관점에 따라 분별하신다. 종교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기독교 교파들에 의해 빛나게 되었다. 한 면으로 천주교와 기독교 교파들은 처음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사람들을 하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 교회를 갖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부터 빛나게 한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주님의 회복은 악한 이 시대인 전통적인 기독교로부터 오는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

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단지 종교일 뿐이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연구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산출하지 못하는 종교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를 합당한 교회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산출하는 유일한 요소이시다.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행한다면, 우리는 교회생활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단지 또 다른 종류의 종교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 제게 공활을 베푸셔서 제가 종교를 산출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실재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이루어지고 행해져야만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계시가 필요하며, 우리 위에 있는 모든 너울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떤 실행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되시는 것임을 볼 것이다(갈 1:16). 단순한 가르침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길 안에서 더 많이 말하고 교통하고 함께 모일수록 더 많은 너울들이 제해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더 많은 계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갈망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의 문제이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도중에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하늘들로부터 주어진 계시를 받았고, 결국 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부터 산출되는 교회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다. 그때에 바울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의해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이 또 다른 종교를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우리가 종교적인 방식으로 행하고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새 창조물, 곧 새사람인 교회는 오직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산출된다. 만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 번 읽으면서 핵심 구절들을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종교와 대립되시고, 교회

가 전통들과 대립된다는 것을 볼 것이다. 게다가 합당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계시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자신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우리의 기원과 시작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적인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써 교회생활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온 존재에서 너울을 제함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방식의 집회와 기도와 가르침들을 뒤로 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넓은 전통적인 성경 지식도 뒤로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안에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온 존재로부터 너울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운행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 결과로 교회생활을 가진다. 교회생활은 종교적인 가르침들, 은사들, 규칙들, 형식들, 혹은 규례들의 문제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옳고 그름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악한 이 시대인 종교로부터 구원받아야만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흠을 베푸셔서 우리의 너울들이 제해지고,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살아 계시고 내주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놀랍고도 직접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후 3:18). 우리는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교회생활을 가진다. 우리는 종교적인 가르침들, 은사들, 규칙들, 형식들, 혹은 규례들이 아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생활을 가진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럴 때 우리의 모든 너울들이 벗겨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볼 것이다. 우리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관심해서는 안 된다. *(실지적이고 참되고 실제적인 교회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17-24쪽)*